

## 이은선 교수의 ‘칼빈과 청교도의 경제윤리’ 에 대하여

주도홍(기독신대원, 역사신학)

### I. 구조 및 내용 분석

총 14쪽 분량으로 이루어진 본고는 “들어가는 말”(1-2쪽)과 결론(13-14쪽)을 빼고는 10쪽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론적 내용은 총 7부분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필자는 “Ⅰ. 16-17세기의 경제상황”(3-4쪽), “Ⅱ. 칼빈과 청교도의 경제 사상의 신학적 원리”(4-5쪽), “Ⅲ. 칼빈과 청교도들의 소명사상”(5-7쪽), “Ⅳ. 개인의 재산과 소비”(7-10쪽), “Ⅴ. 노동과 임금”(10-11쪽), “Ⅵ. 상업과 이자 수취”(11-12쪽), “Ⅶ. 경제 활동에서 정부의 역할”(12-13쪽)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러한 전개는 논리적 타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라 하겠다. 우리는 필자가 대략적으로 이 논문을 어디로 이끌고 가려하는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종교개혁의 제2세대 주자인 16세기 요한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경제 사상을 20세기 말 현대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함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대략 450년의 시대적 차이를 두고서도 필자는 기꺼이 오늘 기독교적 경제 원리의 중요한 한 원리로서 신학자 칼빈의 경제 윤리 내지는 사상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필자

에게 있어서 칼빈의 비중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이에 대한 논평자의 입장 역시 다르지 않음을 숨길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필자 이은선 교수는 먼저 서론에서 본고의 주목적이 칼빈의 경제 이해가 자본주의 형성과 발전에 어떠한 역사적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피에 있음을 밝힌다. 특히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입장, 칼빈주의자들의 “세계내적 금욕”(innerweltliche Askese)이 자본주의 형성에 공헌을 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를 칼빈과 청교도들의 사상을 중심으로 확인하려 한다. 아울러 오늘날의 후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소위 일컫는 ‘빈익빈 부익부’ 등의 부정적 요소들이 과연 이러한 칼빈주의적 사상과 과연 상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칼빈의 사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공하려 함에 목적이 있음을 본다.

그러기 위해서 필자는 먼저 종교개혁이 경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루터를 중심으로 먼저 살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루터의 경제 이해가 어떻게 칼빈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칼빈의 사상이 청교도들에게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도 제시하려 한다. 그러니까 루터, 칼빈, 청교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타당한 역사적 전개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 대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필자는 루터와 칼빈과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칼빈과 청교도와는 일치감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들은 특히 한국의 칼빈주의 연구에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 경향이라 하겠다.

먼저 루터와 칼빈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필자의 글을 인용하면, “루터의 소명 사상은 … 직업과 신분 구조의 변화를 거부하여 오히려 독일 사회의 전통적인 직업 구조와 사회 구조를 유지하게 만들었다. 특별히 … 중세의 봉건적인 농노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루터는 당시의 사회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려는 입장에서 직업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으나, 칼빈은 사회 질서 체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려고 하였고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는 입장이었다”(5-6쪽)

고 말하며, 필자가 칼빈과 청교도와의 관계도 일반적 이해에서 언급하는데, “본고에서는 칼빈과 청교도의 신학적인 연속성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한다. … 성경을 근본적인 신학의 원리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5쪽)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필자는 어쩔 수 없이 루터와 칼빈의 동질성을, 칼빈과 청교도의 차이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은 타당하다 하겠다. “칼빈보다는 청교도들이 부의 획득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 청교도들은 부를 얻고 축적하는 것에 대하여 훨씬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9쪽). 이러한 칼빈과 청교도의 차이성을 필자는 루터와 한 세대 후배인 칼빈에게서 보여주듯 다르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청교도들의 태도의 변화는 로벳슨의 지적과 같이 영국의 경제가 발전한 결과의 반영일 것이다” (10쪽)라고 나름대로 자연스러운 역사적 이해를 제시한다.

또한 칼빈이 당시 제네바에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빈원과 직물업을 시작하였음을 제시하고 부각시키는데, 매우 신선한 착상으로서 이는 개혁주의가 말하는 문화변혁의 사명(cultural mandate)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함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대목이라 하겠다. 이러한 모습은 독일의 루터파 할레(Halle) 경건주의에서도 두드러졌던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필자는 또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가 갖고 있던 잘못된 노동관을 다르게 해석했음을 제시한다. 곧 이는 하나님의 소명으로까지 이어져 성경적 직업 이해가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음을 확인시킨다. 직업이란 이웃을 섬길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써 결과 하나님께서는 삶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삶이라는 개혁주의 이해가 부각되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부(富)라는 이해에 도달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이 부와 자본주의와의 차별화된 명확한 개념적 제시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칼빈에게 있어서 이자 수취는 인간들의 공동체적 삶을 촉진한다는 긍정적 이해와 함께 정당하게 허용함으로써 상업과 수공업에 공헌을 하게 되어 “경제 활동에 신학적인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했다”(12쪽)는 조금은 가파르게 입장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칼빈의 입장을 조금은 모순적으로 “칼빈은 이자받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이나 이자받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하였다”(12쪽)고 말함으로써 이 둘 사이에 미리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기다리지게 한다.

결론에 이르러서 필자는 서론에서 본고의 추구로 제시됐던 물음을 긍정과 부정으로 답한다. “칼빈과 청교도들의 경제사상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칼빈주의의 예정론이 …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베버의 주장은 큰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세속적 자본주의는 칼빈주의 정신의 세속화에서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3쪽). 이러한 필자의 결론은 칼빈의 사상이 직업에 소명의식을 불어넣어 부를 축적케하여 결국 형성된 자본은 자본주의로 나아가는데 일조를 했다는 이해에 도달하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 Ⅱ. 비판적 고찰

칼빈의 경제 윤리와 자본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상관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역사신학적 고찰을 시도한 이 교수의 글은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을 생각할 때 너무도 요구되는 중요한 주제라 하겠다. 시원시원한 이 교수의 글은 일목요연하고 논리가 복잡하지 않아 논평자로 하여금 분명한 필자의 의도와 사상적 전개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먼저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이 교수의 일목요연성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훌륭한 교수법

을 가지고 학생들을 강의실에서 명강의로 사로잡고 있는지를 쉽게 추측해 한다. 아울러 본고의 실질성을 우리는 부각시킬 수 있다. 역사가 그저 흘러간 옛 노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님을 필자는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루터, 칼빈, 청교도 그리고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엄격한 필연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칼빈의 경제 사상이 비록 그가 신학자요, 종교개혁자였지만 우주적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수종들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 점은 탁월하다 하겠다. 이러한 칼빈의 높은 정신은 그대로 청교도들에게 전달되어 미국을 중심한 풍요로운 선진국들을 이루었음을 깨닫게 한다.

그럼에도 본고에서 논평자로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굳이 피력한다면, 첫째, 필자는 왜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적 동질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차이성을 내세우려 하는지? 차라리 한 세대 후인 칼빈의 사상은 변화무쌍한 역사적 전환의 순간에 루터의 사상 위에 확고히 서서 보다 발전되고 정리된 자연스런 역사적 산물임을 부각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는 마치 이 교수가 굳이 칼빈의 사상과 다양한 청교도의 사상을 비교할 때 분명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도 동질성을 강조하려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루터의 창조적 기초 위에서 집을 지어가는 칼빈으로 이해함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사실 칼빈은 편지에서 루터를 이러한 자세로 경의를 보내었다. 그럼에도 이 교수의 이해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루터, 칼빈, 그리고 청교도로 경제 윤리가 이어지고 계승되어지면서 발전하는 역사적 관계를 그리는 것이 보다 본고에서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전진성을 역사적 상관 관계 속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했다.

둘째, 루터의 또 다른 이해를 볼 때이다. 그러니까 루터가 뮌처의 농민전쟁을 지지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봉건주의 체제의 존속을 지지했다

는 것인데, 과연 그러했는지를 묻고싶다. 사실 이러한 입장은 유물론주의적 칼 맑스 - 레닌주의적 루터 이해의 전형으로 인식되는데 이 교수 역시 이를 지지한다는 말인지 궁금하다. 다른 면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봉건 체제의 지지보다는 훨씬 더 말 그대로 개혁을 통한 새 시대로의 전환을 가져왔음이 분명하고, 직업 이해에 있어서도 소명 의식과 성속의 이원론적 삶을 배격함으로써 보다 성경적이고 보다 긍정적으로 칼빈 등을 통하여 다음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셋째, 논리의 애매성 내지는 상충성을 지적하고 싶다. 이 교수는 자본주의와 “세속적 자본주의”를 나누어 말한다. 칼빈은 자본주의에 나름대로 공헌을 했지만, 세속적 자본주의는 칼빈주의 정신의 세속화에서 왔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했지만, 물질의 축복과 자본주의는 물론 상관성이 있겠지만, 부와 자본주의를 일치선상에서 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너무 나이브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차라리 그렇다면 굳이 칼빈의 사상이 현대적 자본주의 사상에 기여 내지는 일치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역사적으로 객관성을 갖고 규명하는데서 본고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어야 하지 않았을까?